



트위크의 완벽한 개방화 및 확장성을 실현해 사용자 요구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유지보수 기능까지 지원하는 공정제어 시스템이다. 'SSAS-21'은 현재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, 2001년 1월부터 약 320여억 원의 수주매출을 가져왔다.

또한, 정 차장은 차세대 선박 제어시스템 'SSAS-Pro' 개발의 프로젝트 리더로서 핵심부분인 CPU 카드 등의 개발을 담당하여 'SSAS-Pro' 개발을 성공시켰다.

선박 제어시스템 분야 '끝없는 도전'

삼성중공업(주) 정태영 차장

과 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'이달의 엔지니어상' 수상자로 선박용 분산제어시스템(DCS: Distributed Control System)의 개발을 물론 설계·설치·시운전 및 AS 업무를 담당해온 삼성중공업(주) 정태경(鄭太卿) 차장을 선정하였다.

선박용 분산제어시스템은 자동제어프로그램이 내장돼 다수의 제어용 컴퓨터를 기능별로 분산시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체 관리는 중앙에서 집중 감시·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분야는 물론 상하수, 지역난방, 가스공급, 전력감시 등 전산업에 걸쳐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.

국내 조선분야의 수준은 세계 1, 2위를 다투고 있지만, 선박에 들어 가는 장비분야, 특히 선박 제어시스템 분야는 기술기반이 취약해 그 동안 해외에 의존해왔다. 그러나, 정 차장과 같은 현장 엔지니어의 노력으로 국내 조선 기자재의 기술 수준이 선진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.

정 차장이 개발한 'SSAS-21(SamSung Automation System-21)'은 프로세스에 대한 감시, 제어의 합리적 운영관리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최신 기술의 고성능, 고기능 제어 시스템이며, 설비의 감시, 제어뿐 아니라 타시스템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스템의 용이성 및 확장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. 또한, 국제 표준 규격을 채택하여 TCP/IP를 통한 네

'SSAS-Pro'는 제어시스템 화면에 실제의 CCTV 카메라 영상을 담을 수 있으며,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아 소형 및 중대형 DCS(Display Control System) 시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쉬운 시스템이다. 더불어, 제어 데이터 송수신 방식을 에더넷 통신으로 통일하여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.

'SSAS-21'과 'SSAS-Pro' 개발로 삼성중공업은 대 선주 신뢰도 향상과 제품의 기능 향상 및 신기술 접목을 통한 오토메이션 전문업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, 향후 3년간 200억여 원의 매출이익이 기대되고 있다.

'이달의 엔지니어상'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·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,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, 과학기술부장관상과 트로피,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고 있다. ㉔

정리_류통은 기자 teryu@kofst.or.kr